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에 다함께 동참을



임경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은 최일선 방역현장인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도면밀하게 운영했을 때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6년 5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세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겨울철새가 국내에 도래함에 따라 AI 유입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신고 체계를 24시간 가동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개선된 상시 가축방역 체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AI 동향

구제역은 지난 4월 28일 충남 홍성·보령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인 중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자칫 우제류 농가에서 백신 접종, 농장 소독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유입 또는 재발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의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와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정부도 방역 취약 농가(발생 시·군 농장 등) 집중 관리, 가축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10월 12일부터 돼지 우선 적용) 도입, 방역 관리 집중 대상(백신 접종 미흡 농장, 계열화 농장 등) 맞춤형 방역 관리,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 교육·홍보, 축산차량 및



도축장·밀집사육지역 집중 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9월 18일 전남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확진 이후, 10월 10일 현재까지 광주 및 전남 소재 4개 시·군·구(나주, 강진, 담양, 광주 광산)에서 총 7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경우 정부의 AI 방역 체계 강화에 따라 도축 출하 전 검사 등 상시 예찰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방역 취약 시설 등 역학 관련 위험농가에 대하여 선제적인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겨울철새 도래에 따라 10월 6일부로 '철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새주의 경보(도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와 지자체에 주요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농가 간 이동경로에 소독시설 설치, 가금농가 및 관련 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할

저희 위생방역본부는 방역·위생·검역·유통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AI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본부 가족들의 역량을 집중시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질병발생을 저감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일선현장 지원과 농가 방역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본부의 주요 중점 추진업무는 농장DB 현행화를 통한 농가정보 신뢰 확보와 이를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입니다. 이와 함께 전화 예찰 전문성 향상을 토대로 민·관 소통기능을 확대해 정부정책의 이해를 돕고, 축산농가들과의 상호 유기적 방역활동을 통해 방역주체인 우리농가들이 스스로 방역활동에 참여해 자기 농장을 자기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농가의 협조와 동참이 가축전염병을 저감시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당부

구제역·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청정화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축산 관련 단체, 축산농가 등이 다함께 동참하여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실시, 외부인·차량 통제, 축사 간 이동시 반드시 전용 장화 착용, 장화 소독, 농장출입자별 농장 기록 철저,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가축질병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근로자(외국인 포함) 관리 철저,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자제, 구제역 백신 접종 철저(100%), 백신 접종 가축만 판매·출하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단방역과 소독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100%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즉시 가축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1588-9060)하여 신속한 초동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부**